

제주사회복지신문

제30호

2010년 4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운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 '우뚝'

사회복지아카데미 26개 과정 연중운영으로 위상강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유일의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아카데미'를 상설 운영, 26개 과정에서 2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월 29일 사회복지협의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장빈 제주CS교육원장을 초청,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오는 5일 욕구조사&설문지 작성법, 23일 성과관리·평가교육, 27일 나라장터 G2B교육 등이 진행된다. 웃음코칭지도자 양성교육은 13일부터 6월까지 계속된다.

또 비영리법인 법률교육 및 홍보동영상 제작교육(5월), 자원개발 및 제안서 작성(6월), 간호사·영양사 직무교육(7월), 이미지메이킹 교육 및 SPSS 활용 통계분석교육(9월), 비영리법인 세무교육(12월) 등 실무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장빈 제주CS교육원장이 3월 29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예산과 회계 등 행정업무에 대해 큰 도움을 주는 행정실무교육은 시설·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경운 상근부회장이 30년이 넘는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강사로 나서 3월에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일터나눔자활센터 등 7곳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에도 영탁복지관(7일), 국제가정문화원(9일), 수눌음지역자활센터(12일), 제주에덕의집(22일)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또 지난해 화북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 등 12개 학교

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얻은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은 올해에는 17개 학교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복지교육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된 교안과 활동자료를 활용, 노인·장애인체험 등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간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교육은 분기별로 교육이 이뤄지며, 자원봉사관리자 특강, 자원봉사자 인증교육 등 다양한 자원봉사교육이 마련됐다.



△제주왕벚꽃축제장에 마련된 수눌음장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목공예품을 신기한 듯 보고 있다.

"자활 생산품에 날개 달아주세요"

왕벚꽃축제기간 '수눌음장터' 운영

3월 26일부터 3일간 시민복지타운 일대에서 열린 제19회 제주왕벚꽃축제 기간에 자활생산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눌음장터'가 운영됐다.

자활생산품은 자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제조기술을 익혀 만들어낸 상품이다.

'수눌음장터'에서는 제주조릿대차 등 7가지 야생차,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켈트, 목공예품 등이 전시·판매됐다. 또 야생차 무료시음, 목공예 기념품 무료제공 코너도 마련됐다.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의 "따뜻한 공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의 '제주다드림' 및 '그린터드림' 등이 제품을 생산해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특산물 판매장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주다드림'은 용담해안도로에 창업해 야생차와 전통음식을 팔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규모 및 자활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판로확보 미흡 등으로 유통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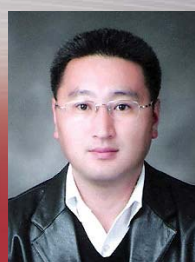
지면소개

- 종합 2·3면
국민연금 수령액증가
시설탐방성요셉요양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대회·소식마당
엔젤헬로양상불 정기연주회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저소득여성 빈곤실태 및 자활지원 방안 토론회

세기자동차



매매상사



김 홍 수

(작은세상봉사단 전 단장)

Mobile. 010-2699-8151

전차중 최고가매입·최저가 판매
전차중 할부판매 및 대차가능



Segimotorsco.

제주시 오라3동 2401-40번지 / Tel. 064-743-9112~3 / Fax. 064-742-9115

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납입기준상향 조정...360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7200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8% 늘어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7200원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260만명의 연금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4월부터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 1만4000원이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

도 2.8% 올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을 더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금액을 소득변동률 2.3%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보험료를 최대 월 7200원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 상황으로 나중에 받는 수급액만 일부 상승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수급대상자는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알바·시간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아르바이트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학 시간강사는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

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무할 경우 강의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

시켰다. 지금까지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하려면 월 80시간 이상 일해야 가능했으며,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2만7000명과 시간강사 7만5000명이 새롭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노인일자리 발대식

3월 23일 제주한라대학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서 사업단 대표가 건전하고 활기찬 일하는 노년상 확립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기와 엄마가 다 편해요”

산모도우미 서비스 확대...한부모가정 등 예외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기준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빚쟁이 이상 출산가정에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산모도우미 파견기간은 한명을 낳았을 경우에는 12일, 쌍둥이를 낳으면 18일이다. 산모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방 청소,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예방접종 등을 돕는다.

출산 예정일 전 6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산하거나 유산해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형,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가진 후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이다.

일자리 참여자 276명(제주시 176명, 서귀포시 100명)은 오는 9월까지 주차단속 도우미, 환경정비, 시설·단체 업무 보조, 동료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중학생 3021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4억5000만원을, 고등학생 5214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24억2000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0억5000만원 등 총 8235명에게 39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7299명에게 34억 4000만원을 지원한 지난해에 비해 학생 수는 12.8%, 금액은 14% 증가한 것이다.

학비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월 4만5000원(4인가족 기준)에서 월 4만5000원으로 확대됐다.

아이사랑 행복카드 써보니 좋네

4000가정 가입...168억6000만원 이용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사랑 행복카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비씨카드와 제휴해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는 아이사랑 행복카드에 4000여 가정이 가입, 연간 168억6000만원의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발전기금도 3373만원(이용금액의 0.2%)이 조성됐다.

이처럼 아이사랑 행복카드 이용이 늘어난 것은 ▲보육, 육아용품, 마트 등 참여업체 이용시 우대할인 ▲카드 연회비 평생면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대출과 예금시 우대금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0.2% 할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참여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부착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



△3월 12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아이사랑 행복카드 출시 2주년 기념식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에 지난해 카드 이용금액의 0.2%인 3373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한 지속적인 홍보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최근에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및 보육 위탁료 전액 감면 ▲도립미술관 관람료 전액 감면 ▲제주아트센터 관람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우대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액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하고, 제주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출산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유진재활센터는 3월 19일~20일 이틀간 창암교육활동센터, 유진재활센터(주·단기), 제주지역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주간보호·그룹홈 3개 시설 연

합으로 표경희 교수(유펜 대표)를 초청, 종사자 연합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사회복지기관의 미션·비전 계획, 기관 운영계획서 만들기, 홍보활동에 대한 기법 등을 배웠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470,000	47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485,000	485,000
복지사업후원	2,030,000	506,010
푸드마켓후원	900,000	554,59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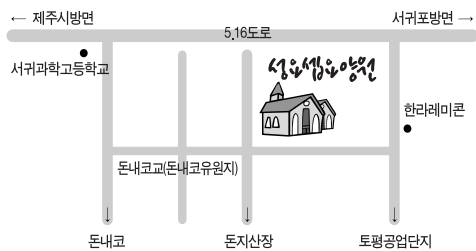
시설탐방

(29) 성요셉요양원



황혼의 추억이 아름답게 머무는 곳

한라산 남쪽 기슭에 위치해 언제나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경치와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는 돈내코 유원지를 향해 가다보면 그곳의 경치만큼이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아볼 수 있다. 봄바람 솔솔 불어오는 3월 어느 날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성요셉요양원(원장 정성희)**을 찾았다.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라는 원훈으로 1986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자리를 마련한 성요셉요양원. 성요셉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및 치매, 중풍 등의 상태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됐으며 2005년에는 증축해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했다.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됐고, 현재 어르신 56명이 생활하고 있다.

성요셉요양원은 어르신 중심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증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정생활과 같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의료협약기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 프로그램강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예방, 육체관리, 위생관리교육, 노인학대에 방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2008년 실시된 원예프로그램에서는 토끼어리 만들기



“감사 말씀에 보람...프로그램 내실화 진력”

체험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에는 (즐거)자, (나누)자, (해내)자 일명 ‘자자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올해에도 원예프로그램 및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플랜트 박스(실내정원) 안에 식물을 심은 뒤 도자기를 빚어 손수 만든 화분에 플랜트 박스에서 자란 식물을 옮겨 심어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성희 원장 수녀는 “새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건강해지시는 모습과 어르신들의 가족들로부터 전해들은 감사의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좀 더 어르신들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원내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기에수님과 성모마리아를 사랑으로 섬기며 성가정의 성실한 가정으로 살아간 성요셉 성인과 같은 아름다운 삶처럼 성요셉요양원도 어르신들의 황혼의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집으로 기억될 것이다.

〈김용성 명예기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서비스 질 개선 기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기준 등이 강화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기준 등이 강화됐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요양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채용기준이 현행 3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소속된 요양보호사 중 20% 이상을 상근하도록 규정해 종전 시간제 근로로 인해 나타날 수 있었던 부실서비스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당청구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돼 현행 위법시 ‘경고’ 처분 이후 ‘영업정지’에서, ‘경고’ 처분 이후 바로 시설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의 급여기간이 연 180일 이하로 너무 길어 단기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 입소기간을 매월 15일로 이하로 개정, 단기보호의 취지를 정립시켜 나가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격이 현행 1~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현재 제주시에 신고된 재가요양기관은 모두 71곳으로, 노인 1338명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림존 개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3월 30일 한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상설 두드림존’ 개소식을 가졌다. 경기, 대전에 이어 3번째다.

상설 두드림존(Do Dream Zone)은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보호관찰, 보육시설 청소년 등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체험중심의 맞춤형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다. 두드림은 ‘미래의 문을 두드리자, 그러면 열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인상담실, 교육실, 직업체험실, 학습실 등을 갖춘 두드림존은 ‘자립’이라는 테마를 지닌 ‘꿈과 비전’ 콘셉트의 청소년 자립준비 공간으로 조성됐다.



실버카페 ‘행복이 오는 집’ 오픈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인 실버카페 ‘행복이 오는 집’을 제주시 노형동 대왕아파트 1층에 마련, 3월 25일 문을 열었다.〈사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이 운영하는 제주실버카페에서는 다양한 전통차와 한방차, 간단한 간식거리를 판매한다.

서울, 청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운영되는 시장형 사업

인 제주실버카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인들의 쉼터, 세대간 만남의 장소,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애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시니어클럽을 통해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노노케어, 청소년자립이사업, 천업염색 제조 판매 등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손끝으로 느끼며 희망 찾아요”

시각장애인 점자·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매년 시각장애인들은 새싹이 전해주는 따스한 봄기운을 받으며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손끝의 촉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찬 내일의 문을 두들긴다.

제6회 라이온스배 시각장애인 점자·컴퓨터 활용 경진대회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주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3월 9일 열렸다.〈사진〉

선수 및 관람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진대회는 한글 단어가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듣고 이를 점자로 적어서 제출하는 점자경기,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듣고 작업하여 파일로 제출하는 점자정보단말기경기, 그리고 제한시간 내에 음성문제를 듣고 워드로 작성하는 컴퓨터경기 등 3종목으로 치러졌다.

김일남씨(시각장애 1급)는 “시력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자를

배우며 세상을 만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점자경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점자정보단말기경기에서 2위를 차지한 송영기씨(시각장애 1급)는 “처음 점자단말기를 배울 때는 기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점자단말기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컴퓨터경기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은선씨(시각장애 1급)는 “컴퓨터를 배우기 이전에는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동생과 소식을 주고 받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눈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우체국을 찾아가 편지를 직접 부쳤다”며 “지금은 동생과 매일같이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무척 기쁘다”고 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양경순 팀장은 “이 대회는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통한 기초재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부세상과의 소통,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회 및 문화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경진대회와

더불어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작품전시회가 함께 진행됐고 경기 직후 경품추첨 행사가 열려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했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

▲점자경기 △1위 김재성 △2위 김일남 △3위 양경혜 △특별상 김희호

▲점자정보단말기경기 △1위 고동혁 △2위 송영기 △3위 백경학 △특별상 오순연

▲컴퓨터경기 △1위 김인락 △2위 신종열 △3위 임효숙 △특별상 김은선

〈양정선 명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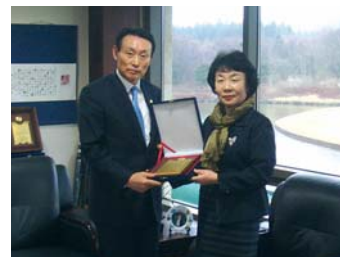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법무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에 대한 가점 및 필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거점기관(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과 매칭기관(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송죽원개원 9주년 기념행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3월 24일 개원 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송죽원 풍물동아리팀의 신명나는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서는 이웃사랑을 품소 실천하는 (주)타미우스 골프앤빌리지 김양욱 회장(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총재)과 송춘초밥 공명수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선영 간호사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거주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수조사 관련 홍보교육과 연강병원 신윤경 전문의로부터 신경정신과 질환 및 장애에 관한 주제로 부모·형제 교육을 실시했다.



3월 식품기탁자

▲(주)금강 축산유통=육류 288kg ▲서문식품=두부 384모 ▲김치원=김치 60kg ▲한아름 정육마트=육류 100kg ▲고용법=김 3상자 ▲라이온스클럽=100만원

소/식/마/당

아동폭력예방 교직원연수 실시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는 3월 17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아동폭력, 성폭력, 호신술과 아동폭력 대처방안,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를 주제로 마련됐다. CAP은 아동의 안전하고, 씩씩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위한 아동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다.

도노인복지회관, 순회무료진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3월 19일 서귀포의료원(원장 양재식)과 연계해 표선리경로당을 방문, 순회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경로당활성화사업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3월 12일 성요셉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의=757-3400.

아가의집 생활인 1일 관광



비너스고속관광 상조회(회장 강정필)는 3월 5일 혜정원 아가의집 생활인 40명을 대상으로 1일 관광을 실시했다.

아가의집 생활인들은 코끼리랜드를 방문하고 몽골리안 마상쇼 등을 관람하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3월 26일 예비위탁부모들을 모시고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와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위탁부모의 역할 등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위탁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니움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의 실재에 대해 간접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위탁부모양성교육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부모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미타요양원서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회원 10여명은 3월 20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위치한 미타요양원을 방문,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외 화단 잡초제거 및 텃밭 정비 등 노력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첼로의 선율로 꿈 키우는 천사들

엔젤첼로앙상블 아름다운 하모니 선사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아름다운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3월 27일 제주시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천사들의 꿈이 첼로를 통해 울려 퍼졌다.

천사의 집 '엔젤첼로앙상블'의 정기연주회가 열린 것이다.

2003년 결성된 '엔젤첼로앙상블'은 2005년 12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올해 5번째 정기연주회를 맞고 있다.

영화 '스팅'의 삽입곡 'THE EASY WINNERS'로 문을 연 이번 연주회는 25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합주와 2009년부터 열심히 준비해 처음 무대에 오르는 '음치합창단'의 중창 그리고 엔젤첼로앙상블의 연주회를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당당히 음대에 진학한 학생의 독주로 구성돼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3월 27일 제주시문예회관에서 열린 천사의 집 '엔젤첼로앙상블' 정기 연주회에서 단원들이 합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연주뿐 아니라 행동도 감동을 전해준다.

'엔젤첼로앙상블' 단원(중·고등학생)들은 창단 때부터 헌신적으로 지도해 준 김원택(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선생님과 함께 인근지역(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의 첼로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지도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 6명이 이번 정기연주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위문공연 및 각

종 행사에 출연해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음악을 전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밝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이동형(사회복지사)씨는 "공부하랴 연습하랴 힘들겠지만 이런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자원봉사 네트워크 새 도약”

제주시자원봉사센터 10주년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3월 6일 한라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혼자 사는 노인과 가족자원봉사단 1대1 결연식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58명에 기장패 전달 ▲노래자랑 ▲테마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1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고수연 센터장이 가족봉사단에게 1대1 결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00년 2월 22일 문을 연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는 445개 단체·3만576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

시각장애인 사회적응력 높이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옛 제주시를 제외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춤동작치료, 향기치료, 요리치료, 음악치료 등을 통해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자극,



시각장애로 인한 충격, 상실, 적응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덕의집 장애인 청소년가족봉사단

‘두지붕 한가족’

제주애덕의집은 입소 장애인 중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중증장애인들과 청소년가족봉사단이 1대1 가족결연을 맺어 활동하는 ‘두지붕 한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애덕의집은 중증장애인과 청소년가족봉사단이 오름등반,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노래교실, 자전거타기, 텃밭가꾸기 등의 여가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정을, 청소년가족봉사단에게는 가정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 등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에 실시되는 ‘두지붕 한가족’ 프로그램은 사업설명회, 장애인해교육, 가족간담회,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결연가정방문, 가족음악회, 활동사진전시회, 프로그램 평가회 순으로 진행된다.

알/림/마/당

■ 정혜재활원 2년 연속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선정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서귀포시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허브를 이용한 직업적 잠재력 향상프로그램 2010 희망나눔 정혜허브누리'를 응모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응모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허브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 향상프로그램'의 계속사업이다.

정혜재활원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한층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혜재활원 이용자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허브정원 개방, 지역주민과 허브농장 가꾸기와 허브차 나누기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가롤로의집개원5주년

가롤로의 집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가롤로의 집 스포츠센터에서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행사에서는 감사미사와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고, 전시회도 열린다. 가롤로의 집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감사를 전하며 꼭 참석해 격려를 당부했다.

문의=723-0245.

■ 9일 여성장애인성폭력 추방캠페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오는 9일 동문로터리 산지천 분수대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에는 여성장애인 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여성장애인 당사자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753-4980.

성이시돌요양원,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

성이시돌요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11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성이시돌요양원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법정 인력기준 준수 ▲장기요양급여·후원금 등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

입소자 건강관리 및 위생실태 우수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허위 부당청구사례가 없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로 성이시돌요양원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일정액을 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사랑의 열매, 무료급식지원사업 4500만원 지원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3월 8일 사랑의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구세군다일사나눔의집 2개 기관에 4500만원을 지원했다.

무료급식지원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구세군다일사나눔의집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연말까지 혼자 사는 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청과 탐동광장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노인들은 가족해체 등으로 기초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칼럼

우화(寓話)에서 배우는 경제, 그리고 마음공부



김 범 훈
제주일보 논설실장

우화(寓話)는 동·식물 등에 빗대어 엮은 교훈적이거나 풍자적인 이야기를 일컫는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옮겨 놓고 보니 우화는 마치 거창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다. 일단 내용 자체가 길지 않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이다.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녹아나고 쉽게 다가온다.

글로벌 CEO 우화로 메시지 전달

무엇보다 우화의 특징은 상황 전개 과정이 무척 재미있다는 점이다. 재치와 유머, 반전과 역설의 기법이 통쾌하기까지 하다. 대개의 내용들이 동물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다루고 있어서다. 우화가 예나 지금이나 권선징악(勸善懲惡)이란 덕성교육 교재

로 인기를 끌며 회자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렇듯 우화는 인간으로써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현실적 깨우침을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동물들의 이기심과 욕심은 경제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기심과 욕심은 어쩌면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경제란 인간 군상의 일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 한다면, 동물의 다양한 행동도 이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구미 선진국의 경제 총수들은 생존전략의 화두로 우화(寓話)를 자주 인용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진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메기론’을 들 수 있다. ‘미꾸라지론’으로도 불리는 ‘메기론’은 1990년대 중반 이 회장이 ‘신(新) 경영’을 주창하면서 소개한 이야기다.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메기를 함께 풀어 놓는다. 미꾸라지들은 메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활발히 움직인다. 자연히 미꾸라지의 운동량이 많아지고 고기질도 좋아진다는 내용이다.

세계적 기업인 GE 잭 웰치 전 회장의 ‘개구리론’도 화제를 일

으킨 바 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 즉시 튀어나온다.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튀어 나오지 않는다. 이어 서서히 물을 데워도 개구리는 그대로다. 나중엔 물이 뜨거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다.

겉치장보다 내면의 실속 중요

글로벌 경쟁시대 기업들은 긴장과 경쟁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결국 우화를 통해 배우는 것은 마음공부다.

어른들은 한번 이상 읽어봤을 이솝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용인 즉, 요술쟁이 집에 고양이와 생쥐가 살고 있었다. 생쥐는 고양이에게 무서워서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생쥐를 불쌍히 여긴 요술쟁이는 생쥐를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생쥐는 개가 무서웠다. 다시 개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번엔 호랑이가 무섭다고 했다. 그러자 요술쟁이는 무척 실망하곤 다시 생쥐가 되라며 예전의 생쥐로 되돌려 버렸다.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 속은 생쥐의 마음으로 가득 찼으니 가망이 없다는 의미다. 내면의 실속 없이 겉모양만 치장하려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시론

장애우(障礙友)라 불리달라 한적 없다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단어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이란 획기적 정보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의 단어 생성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이나 빨라 ‘몸짱’, ‘사오정’ 등 인터넷 은어들이 오프라인에서 단어로 안착되어지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 반면 든든히 성역의 보호를 받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범용어라고 지적한다면 공감할 것이다. 쉽지 않은 단어에 도통 해석이 난감한 한자어가 통용되는 곳. 혹자는 그들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권력에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한다. 하여튼 우리 사회는 ‘법조인’으로 통용되는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이 새(士)자로 끝나면 존경과 대접의 정도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반면 노동자의 자는 놈 자(者)이다. 1990년대 중반 라디오 녹화인터뷰에서 노동자 단어를 뱉으니 리포터는 레코더를 잠시 끄고 ‘노동자라는 단어가 빨간 냄새가 나니 근로자로 순화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 무슨 히스테리컬한 요청이시냐, 둘 다 동의어인데, 노동자로 하겠다’며 녹음을 마쳤었다. 15여년이 지난 지금, 이 집단호칭에 알려진 반응을 하는 선글라스집단이 존재하지만 국민다수는 보편적 노동자 호칭에 대해 불편해 하지 않는다.

1970년대 초·중등학교를 다니던 나의 장애에 대한 집단적 호칭은 불구자(不具者)였다. 사춘기였던 나에게 그 호칭은 한자어 풀이대로 사람이 몸이면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 무엇’으로서 모멸감을 주며 나를 짓누른 괴물이었다. 1980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호칭이 ‘장애자’로 통일되었지만 이 역시 비하적 단어라 하여 호칭공모가 있었다. 전국적 공모에서 ‘재활인(再活人)’이라 고쳐 쓰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독자가 보시기에는 어떨까. 공장에서 술병이나 플라스틱 따위에 대해 재처리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활용품이 연상되지는 않는가. 인격체인 장애인을 부품처럼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다는 기술공학적 관점을 가진 학자가 내놓은 발상이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호칭이 장애인으로 정착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족히 30여년 이상이 걸렸다. 한데 요즘은 마스크와 봉사단체들이 ‘장애우(障礙友)’라는 호칭을 많이들 쓰고 있다. 벼를 뜻하는 우(友)가 어감이 좋은 단어는 틀림없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호칭할 때 ‘나는 장애우입니다, 당신은 비장애우입니다, 우리는 장애우입니다.’로 쓰면 문법상 맞겠는가. 가령 변호사가 자신의 인칭을 쓸 때 ‘사’를 ‘우’로 바꾸어 ‘나는 변호우입니다, 당신은 변호우입니다, 우리는 변호우입니다.’로 한다면 말이 되는가. 선량한 사용의도라 하여도 당사자 입장에서 유쾌해 하지 않는다면 안 쓴만 못하다.

노동자 호칭은 집단비하가 아닌 합의된 보편적 호칭으로,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노동인’으로 자의적으로 바꿔 부른다면 이는 회화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우로 호칭을 바꿔 달라고 한 적이 없기에, 합의되고 정착된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굳이 ‘장애우’라고 바꿔 호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 이유는 있으나 각설하고 일부의 ‘장애우’ 별칭 사용을 선의적인 행동과 유행으로 치부해야 하는 것인지,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마이너리티의 주장에 대해 독자들에게서 고민하여 주셨으면 한다.

기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느낌표(!)를 찾으세요



강 현 수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도, 좋은 음악도, 감동적인 영화를 보아도 감동할 줄 몰랐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정도였다. 그러자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던 느낌표가 화가 나서 가출을 해 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밝기 시작했고, 밥맛도 없고, 몸에 힘이 없어 결국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당신이 이렇게 앓는 이유는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곳을

찾아 당신의 느낌표를 다시 찾아라”라고 말했다. 그는 빠져나간 자신의 느낌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 석양빛에 물든 자신의 집이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아!’ 하는 탄성을 질렀다. 자신의 집, 가장 가까운 그곳에 느낌표가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치매 노인, 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가 참 많다.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등록 장애인수가 1만 명 가까이 된다. 그 중에서도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가슴에 느낌표가 잠들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잠든 느낌표를 깨워 줄 가장 좋은 사업을 소개하고 싶다. 바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 및 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기준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 이하로 조정이 됨으로써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391만 3000원 이하면 월 본인부담금 6만원으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현재 1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5명이나 증가되었고, 꾸준히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제공기관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 손가락언어치료센터 등 3개소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우리 가슴에 느낌표가 잠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애 하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고, 느낌표를 나눠줄 수 있는 감성적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 제주지역 저소득여성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

일·가족 양립시스템 사회적 확산 필요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 여민회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사업으로 3월 18일 제주시열린정보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저소득여성의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를 가졌다.

본지는 강경숙 여성빈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이 발제한 '자활사업 참여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발표 및 제언'을 요약, 정리했다.



△3월 18일 제주시열린정보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저소득여성의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일·가족 양립 패러다임 확산

저소득 여성가구주는 혼자 일과 가족을 양립해야 하는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독부모 혼자 자녀를 양육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전반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기업과 국가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가 조성, 지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출산, 육아휴직이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간제노동자나 탄력근무제노동자 등의 임금이나 임금 외 금품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례해 지급돼야 하며, (성별을 떠나)가족 책임을 지닌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에 한정될 경우 저소득계층이 기업복지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복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남성의 돌봄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양육은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동안 남성들은 양육·돌봄 책임에서 면제되어 왔다. 남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실시와 남성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돼야 한다. 남성배우자의 양육비를 강제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에서 양육하

남성 돌봄 책임강화·돌봄 사회화모델 개발돼야 통합급여서 개별급여 전환...통합 보육시스템 구축

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등 대안적 영역에서 돌봄의 사회화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인 자활사업이나 여성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 등의 대안적 영역에서 가족친화적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서 급여혜택을 모두 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하는 'all or nothing'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수급권자들 중에서는 일과 근로소득을 통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상태로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제도에 놓인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all or nothing' 구조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가구 사례별 관리와 수급권을 벗어난 후에도 단계적인 보조정책이 필요하다. 수급권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

의 분야에서 사회보장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급여' 형태의 생활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현실 반영한 정책 수립

현행 주거지원정책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택임대에 있어 전세가 거의 없고 년세(사글세)로 이뤄지는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금 융자 지원을 받고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실시돼야 할 것이다.

지역 보육·양육시스템의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 가족 자녀의 돌봄이 이뤄지고 있으나 각 영역에서 산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많은 저소득 가족 자녀들에게 돌봄의 사회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사례별 접

근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 통합적인 보육·양육시스템이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

▲여성 빈곤실태 성인지적 데이터 구축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빈곤에 관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 있다. 오늘날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성인지적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자료나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적이다. 특히 모든 데이터에 성별분리통계를 기본적으로 실시해 성인지적인 데이터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빈곤에 대한 대안적 담론 필요

저소득층 여성의 조직화&임파워먼트를 위한 창구가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복지 의존적이라고 일컬어지며 자존감이 낮고 수동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빈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은 탈 빈곤을 어렵게 하는 중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여성의 조직화와 임파워먼트는 탈 빈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의 조직화와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동료상담가 육성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여성의 심리, 정서적 지원 창구와 복지정보 제공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 대안적 영역에서 빈곤에 대한 대안적 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빈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는 빈곤과 비빈곤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스스로를 빈곤과 거리두기하려는 '구별짓기'의 심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만족하며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의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빈곤에 대한 편견을 깨고 빈곤과 비빈곤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시민단체 등 대안적 영역에서 해야 할 몫이다.



△제주지역 저소득여성의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에서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료도 전시됐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곶간 빈 푸드마켓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나눔의 기본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 도민들의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기부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기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부식류와 간식류, 식재료, 생활용품 등 무엇이든 기부가 가능하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기부해주신 물품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현금기부도 가능.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업체 및 기부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눔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



신산공원
●
문예회관
●
← 시청방면
●
제주동부경찰서

한국산업인력공단 1층
사랑나눔 푸드마켓

→ 화북방면

문의 | 사랑나눔 푸드마켓 758-1377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702-3783 ~ 4